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변화와 중국의 미래' 학술회의...국민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개최

[중앙일보] 입력 2020.04.23 14:5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중국의 미래

2020.04.29.수 오전 09:30-12:30 국민대학교 콘서트홀

실시간 YouTube 중계

개회사: 윤경우(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소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환영사: 임홍재(국민대학교 총장) 권구훈(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축사: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前청와대국정기획상황실 실장)

최재성(Clarksons Platou 대표이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1부 사회: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前부원장 · 원장직무대행)

1. 코로나19 국면 하의 중국 일대일로 전략 분석

발표: 이창주(아주대) 토론: 윤승현(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2.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대응과 정치엘리트 동학

발표: 서상민(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토론: 양갑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3. 코로나19와 스마트시티: 중국 사회관리체제의 변화

발표: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토론: 윤종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부 사회: 김민기(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前서울의료원 원장)

4. 코로나19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전망

발표: 이현태(인천대) 토론: 정도숙(KOTRA)

5. 중국의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의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발표: 고정오(단국대) 토론: 박상용(강원연구원)

6.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에너지 · 전력 변화

발표: 양철(성균관대) 토론: 이민규(서울연구원)

3부 종합 사회: 김범석(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

• 코로나19로 촉진된 글로벌 대변혁과 중국의 대응

발표: 윤경우(국민대)

토론: 조창상(기획재정부) 김범수(강원연구원) 김영진(국민대) 은종학(국민대)

※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대형 공간에서 학술회의 주관.

주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관: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공동으로 오는 4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변화와 중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향후 변화의 양상을 분석·예측하고 그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한·중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은 것과 더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한·중 관계의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손꼽힌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의 중국문제 거점연구소인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이번 학술 회의를 통해 신북방 정책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져,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건영 前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정치적 대응과 사회관리체계의 변화, 중국의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에너지 및 전력의 변화, 글로벌 대변혁과 중국의 대응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중국학부 윤경우 교수는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 공간에서 참여자를 최소화한 상태로,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내용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및 지역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자문기구이다. 국민대 윤경우 교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